# 광주문화예술상 미술상에 장진원·한희원 작가

**특별상엔 임노식·박성완 작가 선정**

**지역 넘어 국제적 예술상 도약 기대**

**각 시상식 9월18일·11월21일 예정**

장진원 〈허백련미술상〉

한희원 〈오지호미술상〉

임노식

박성완

광주시가 '2025 광주시 문화예술상 미술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

한국화 부문 '허백련미술상' 본상은 장진원(58·광주) 작가, 특별상은 임노식(36·서울) 작가가 수상했다. 서양화 부문 '오지호미술상' 본상은 한희원(70·광주) 작가, 특별상은 박성완(41·광주) 작가가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광주시는 본상 수상자에게는 광주시장 상패와 함께 차기년도 창작활동비 1천만원과 전시 기회를,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창작활동비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 문화예술상 미술상'은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허백련 화백(1891-1977)과 오지호 화백(1905-1982)의 예술 정신을 계승하고 창조적 예술 활동을 펼친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1992년 제정됐다. 올해까지 총 10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장진원 작가는 수묵 기반 추상회화를 통해 한국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독자적 양식을 확립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조선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이후 2000년대 뉴욕으로 이주, 지금껏 한지·먹에 혼합 매체를 활용, 전통회화의 해체와 재구성을 실험했다. 특히 명상, 사후세계, 종교 등 영적 소산물을 키워드로 동양회화의 사의에 귀결하는 주제를 다뤄왔다.

한희원 작가는 민중미술에서 출발해 존재와 시간 등 철학적 주제를 서정적으로 풀어낸 회화 작업을 이어왔다. 광주 양림동에서 한희원미술관을 운영하고 양림골목비엔날레 추진 등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주목받았다. 독자적 양식을 획득한 예술적 성취와 함께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동반해 온 한 작가는 오지호 화백이 축적한 예술적 성과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받았다.

임노식 작가는 여백과 선의 표현을 통해 전통 동양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으며, 박성완 작가는 역사적 장소와 사건을 주제로 회화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시대를 반영하는 작업으로 주목받았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추천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지역 안팎 전문가를 고루 위촉해 수상의 공정성과 권위를 높였다. 총 29명의 후보자 중 2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은 "허백련·오지호 선생의 예술정신을 이어받은 4인의 작가를 통해 광주시 미술상이 지역을 넘어 국제적 예술상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 미술상 시상식의 경우 허백련미술상은 9월18일, 오지호미술상은 11월21일 열리며 지난해 수상자 기념초대전과 연계해 개최될 예정이다. /기수희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광주세계양궁대회조직위 '성공 개최' 협약

**휠체어 리프트 특장차량·인력 지원**

2025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시지부(지부장 이은형)는 8일 시청 접견실에서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22-28일 광주에서 열리는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보유한 장애인 특장차량과 전문 운전인력 자원을 대회 운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직위원회는 장애인 선수단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입·출국 수송에 하루 10대, 경기장 수송에 하루 16대의 차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7대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장차량은 장애인 선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며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에 함께 나서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시지부에 감사드린다.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고 오는 9월 평화의 물결이 넘치는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양궁월드컵과 함께 세계 양궁 3대 이벤트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비장애인 대회와 동시 개최된다. 세계적으로는 이탈리아 토리노, 네덜란드 스헤르토헨보스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7일 기준 40개국 417명(리커브 84명·컴파운드 81명·중증장애 46명·시각장애 17명)의 선수가 엔트리 등록을 마쳤다. /기수희 기자

## 신한라이프, 광주시에 아동급식비 5천만원 전달

신한라이프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 후원금 5천만원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시는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신한라이프,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김민지 신한라이프 상무, 김영기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전달받은 후원금으로 지역아동센터 50개소 아동 1천200여명에게 여름방학(7월21일-8월16일) 동안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센터는 광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김민지 신한라이프 상무는 "지역아동센터 후원은 방학동안 부모들이 가장 고민하는 아이들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됐다"며 "특히 신한라이프 본사와 광주에 근무하는 FC(보험설계사)가 동참해 추진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시는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2025년 상위인증을 획득한 만큼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 조선대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 몽골서 연수 교육

조선대학교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는 "최근 몽골에서 현지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 교육은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사업'의 기술마케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몽골 치과의사 총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치과 기업 제품 기반 기술마케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디지털 치과 워크플로우를 중심으로 한 핸즈온 실습과 최신 기술마케팅 강연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에는 ▲손미경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교수 ▲박정철 서울 효치과의원 원장 ▲간투무르 몽골국립치과대학 교수 ▲김수민 조선대 치과병원 보철과 전공의 ▲남지윤 연구원이 참여해 최신 임상 기술과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세움메디 ▲힐링스 ▲에이포랩 ▲휴덴스바이오 등 디지털 데이터 기반 치과 기업의 제품이 전시·홍보됐고, 제품 성능 및 사용성 평가가 진행돼 몽골 치과 시장에서의 판로개척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몽골 컴퓨터 가이드 디지털 임플란트 학회와 해외글로벌 임상실증 및 마케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혜기업 제품 사용의 거점 병의원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기반도 구축했다.

손미경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장은 "몽골은 한국 치과제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번 연수회 및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 치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 道교육청, 팝핀현준 '희망 전남 교육 명예대사' 위촉

전남도교육청은 8일 "청사 교육감실에서 '희망 전남 교육 명예대사' 위촉식을 갖고 가수 팝핀현준(가운데)씨를 명예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팝핀현준씨는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자신의 꿈을 이룬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2016년 '희망 전남교육 명예대사'로 위촉된 국악인 박애리씨의 배우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방송연예계열)를 중퇴했으나, 1998년 영턱스클럽(4집)으로 데뷔해 1999년 월드힙합페스티벌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공연 무대와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스트릿 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아내 박애리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팝핀현준씨는 앞으로 전남교육 홍보영상 출연 등 전남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 특강 등 교육 기부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다이 기자

## 광주YMCA, 한동수 변호사 초청 강연 성료

광주YMCA는 지난 7일 한동수 변호사를 초청, 108차 시민논단을 성황리에 마쳤다.

무진관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논단의 강연자로 나선 한동수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역임했다.

한 변호사는 "모든 권한은 집중되면 남용되고 부패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산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정보 비공개와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부패는 싹트게 된다"며 "검찰 내부의 인사 개편과 제도 개정이 병행돼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광주YMCA 시민운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현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건강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7월의 5·18민주유공자' 故 정종월씨**

7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故) 정종월(사진)씨가 선정됐다.

8일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정씨는 1961년 7월27일생으로 1980년 5월20일 공업사에서 자동차 정비 조수로 일하던 중 퇴근길에 계엄군을 만나 집으로 도망쳤다가 상황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이후 전남대 인근에서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하고 화상을 입은 채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상무대에 수감됐다가 석방됐으나,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5년 별세했다.

5·18민주묘지 관리소 관계자는 "故 정종월씨는 제1묘역 3구역 14번에 잠들어 계신다"며 "앞으로도 열려 있는 국립묘지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장성경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장성경찰서는 지난 7일 경찰서 3층 백양마루에서 '2025년 2분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경찰서장과 각 과장 등 지휘부를 비롯해 경찰발전협의회 정귀우 회장과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신규 위원 위촉과 감사장 수여를 시작으로 경찰서 주요 치안 성과 및 추진 시책 공유, 지역 치안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순으로 이뤄졌다.

배상진 장성경찰서장은 "경찰발전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치안을 더욱 향상시키겠다"며 "주민과 경찰을 잇는 가교 역할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귀우 경찰발전협의회 회장은 "장성경찰의 활동을 더욱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치안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장성경찰서는 주민 의견을 치안행정에 반영하고 민·경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장성'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경찰-담양군, CCTV 보수 회의**

담양군과 담양경찰서는 최근 마을 내 쓰레기 투기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보수 관련 실무진 회의를 가졌다.

8일 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담양경찰이 지난 3개월간 관내 총 477개소, 895대의 마을 CCTV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일부 CCTV에서 고장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추경안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 기관은 기초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한 마을 CCTV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장난 CCTV의 점진적 수리와 더불어 관제센터 이관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양수근 담양경찰서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체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 인사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전보 ▲호남지역본부 이장훈

◇지점장 전보 ▲광주 김형석 ▲순천 박노철 ▲광주서 김건 ▲광주기술혁신센터 김대균 ▲광주재기지원센터 박완서